

ESM을 통해 본 취업/비취업주부의 소비생활경험 및 주관적 삶의 질 -쇼핑활동을 중심으로-*

The Consumption Experience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of Korean Housewives through the Experiential Sampling Method-focused on shopping activity

유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Yoo, Hyun-Jung

Dept. of Housing/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Korean housewives' consumption experience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Perceived quality of life was composed of four dimensions: motivation, affect, efficiency, and activation.

The study results are:

1. Housewives spare their time for physiologic activities(22.9%), household activities(20.1), and personal activities(10.1%) in sequence.
2. Although the motivation that housewives do shopping activities is coming from a sense of duty,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during shopping is showing far more positive affect than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during other activities. In this context, shopping activities are interesting in that they are thought of a kind of entertainment as well as work.
3. With an analysis of covariance, housewives' perceived quality of life has an effect on everyday life in that 4 perceived qualities of life such as motivation, affect, efficiency and acti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flow and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Key Words : ESM(Experiential Sampling Method), consumption experiences, perceived quality of life, housewives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인간은 소비자로서 태어나 소비자로서 살아가다 심지어 사망한 후에도 제사나 납골당 관리 등과 같이 그 후손들을 통해 끊임없이 소비를 야기시킨다.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혹은 사용이 배제된 순간이란 극히 드물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침대와 이불과 전기담요, 가습기를 사용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음료수를 마시거나 TV를 보는 등 이미 소비란 공기와도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삶에서 소비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더 부연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정교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은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을 오히려 객체인 상품에 예속시키는 아이러니한 역전현상(descentering)을 가져오는 등 소비의 증가와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과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최신의 정보통신 기기 등을 사용하려면 마치 시험공부를 하듯 매뉴얼을 익혀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컴퓨터의 사용은 이제 컴퓨터가 없는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싸게 파는 상점과 쇼핑물을 검색하지만 결국 싸다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상품들을 사들임으로써 소비자 효율성은 그다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3-C00190).

** Corresponding author: Hyun-Jung Yoo
Tel: 043) 261-2728, Fax: 043) 276-7166
E-mail: yoohj@chungbuk.ac.kr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내용, 소비활동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소비에 관한 연구는 소비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경험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 단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바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표집법이라 불리는 ESM(Experiential Sampling Method)을 제안하고자 한다. ESM은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으로서 일상생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집중관찰법 및 순간표집법, 생활일지법이 갖는 제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기대되며, 국내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매우 소수의 연구결과(김기옥·현은자·최인수·유현정, 2004; 김기옥·김순옥·황선진·이수진·현은자·최인수·유현정, 2005; 김기옥, 2006)만이 보고되었다. 김기옥 외의 2004년 연구와 2005년 연구는 ESM을 이용한 초기 연구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시간과 주된 활동, 활동시에 느끼는 내적 경험 등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김기옥의 2006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주부로 옮겨 보다 심층적인 내적경험 분석에 주력하였고, 척도를 정교화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그동안 소비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조사대상 즉 소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음으로써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가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소비생활 연구의 확장과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 연구

1) 삶의 질 연구에 대한 동향

삶의 질이란,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다면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람의 물질적·신체적 수준 내지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안녕 혹은 복지(well-being),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범죄,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던 서구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도록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삶의 질에 관한 논의의 흐름은 사회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려던 1960년대의 사회지표운동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옮겨져 거시적 접근보다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풍요를 양과 함께 질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데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의 삶의 양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결국 개개인의 주관적 인지가 중요하다는 논의에 이르게 되면서 주관적 인지의 가변성으로 인한 측정과 비교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이현승, 1997). 따라서 사회 전체의 보편적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1980년대에 이르러 하위 인구집단의 삶의 질이나 건강, 노동 등과 같은 부분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로 전문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 차원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은 수없이 다양한 일과 사건과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외적 활동을 하면서 그 순간마다 다양한 내적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주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주관적 차원에서 본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유능함, 자긍심, 보람, 삶의 의미 등의 긍정적 정서”(한성열, 1995. p.3)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삶의 질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희정·이숙현, 1995; Bryant & Verloff, 1982; Diener, 1984; Ross, Mirowsky와 Goldsteen, 1990)을 검토해 볼 때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 심리적 안녕과 같은 유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인간의 삶에 있어 긍정적 정서, 인지

적 효율성, 만족도 등이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김기옥·현은자·최인수·유현정, 2004).

희망, 기쁨, 열망, 환희 등의 긍정적 정서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기체를 유지, 회복시켜준다(조은경, 1995). 정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서를 경험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서들을 조화롭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에 좀 더 가까이 근접했을 때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조은경, 1995).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며 정서 자체도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서와 인지적 과정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동일한 상황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 성격이 정서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조은경, 1995), 정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Babad & Wallbott, 1986).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서의 측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차원에 걸쳐 일어나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하는 상황들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개인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 매개된다(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삶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간에 괴리가 발생하면 삶에 대해 후회하게 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괴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적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Lecci, Okun, & Karoly, 199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서와 인지적 효율성과 만족도는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내적 경험변수이면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과 여가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을 비교한 연구(Csikszentmihalyi & Kubey, 1981)에 의하면 주관적 경험은 인식력(cognition), (감정변화)영향결과(affect), 유효성(potency)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인식력이란 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도전(challenge)

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skill)이 얼마나 된다고 느끼며 그 활동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지 등의 자기 자신의 효율성을 인지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으며, 영향결과란 활동의 결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즉 어떠한 감정변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감정상태 혹은 정서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유효성이란 하고 있던 활동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경험의 질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의미한다. 이후 ESM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질을 측정한다(Csikszentmihalyi & Figurski, 1982)에 의하면 경험의 질은 정서(affect), 활동성(activation), 관여도(involvement)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정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순간의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복하다 혹은 슬프다', '초조하다 혹은 신나다' 등의 대립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의차별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활동성은 행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힘이 넘치거나 혹은 나약한지', '적극적인지 혹은 수동적인지'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어의차별척도를 통해 측정된다. 관여도는 자신이 행하고 있던 활동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몰입하고 있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느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주관적 삶의 질을 1) 동기(motivation), 2) 정서(emotion), 3) 활동성(activation), 4) 효율성(efficiency)의 4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주부의 일상생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일상생활의 개념과 분류

소비(consumption)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점점 더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 인간의 일상생활은 거의 매순간 소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김기옥, 2006),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소비생활 세계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험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생활세계로서 '일상적'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속적(profane)이고 상식적인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상식의 세계는 실증적 과학성을 추구하는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의해 비과학적으로 비춰져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김기옥, 2006).

그러나 Hursssel은 모든 인식의 근원과 뿌리를 찾아가

기 위해서는 과학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영호, 1996). Csikszentmihalyi는 ESM을 이용한 청소년의 일상생활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비생활경험에 접근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Prescott, Csikszentmihalyi, & Graef, 1981; Csikszentmihalyi, Kubey, 1981). Csikszentmihalyi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외적경험과 내적경험으로 구분하고 외적경험을 어디에서(location), 누구와(companion), 어떤 활동(activity)을 하였는가로 파악하였다. 즉, 일상생활은 매순간순간 개인이 행한 활동(activity)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함께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폭과 경험의 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상황 또는 맥락(context)으로 이해된다. ESM을 이용해 도시주부의 소비생활세계를 분석한 김기옥(2006)은 가사활동, 자녀관련활동, 사회활동, 개인활동, 관리활동, 가족관련 활동, 구매활동의 총 7가지로 주부의 일상생활을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시간 연구들은 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활동으로 구성하는가를 시간적 배분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였다(문숙재, 1996). 인간의 활동은 시간의 사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의 생활시간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생활시간의 구분은 일상생활연구에서도 유용한 분석의 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시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표 1> 과 같이 다양하다.

2) 취업/비취업에 따른 일상생활 차이에 관련된 연구

이밖에 주부의 취업과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들이 경험하는 소비생활 단면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이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상생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시간사용연구 역시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한 연구(고정자·김갑숙, 1997)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스트레스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어 소비생활경험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미국 마케팅분야에서는 취업주부가 갖는 구매력에 관심을 보이며 표적집단으로서의 취업주부의 구매행동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물이 발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도 그다지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박명숙·백경임, 1997)에 의하면,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보기 시간,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한 뒤 시간일지법에 의해 각각의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르는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소비생활에 해당되는 활동은 가사노동시간에 해당되는 '장보기'정도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생활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 내용으로 행해지고 있어 어떤 경우는 가사노동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가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활동이 될

<표 1> 생활시간의 분류

연구자	생활시간분류
Szalai(1972)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외무,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시간, 직업과 관련 없는 교통시간, 학업과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
Hill(1985)	시장노동, 가사 및 옥외노동, 자녀돌보기, 서비스 및 구매, 개인적 돌보기, 교육, 조직참여활동, 사회적인 오락, 적극적인 여가, 소극적 여가
서병숙, 임정빈(1989)	생리적 시간, 가정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한경미(1991)	생리적 시간, 작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조희금(1993), 이기영등(1994), 홍향숙, 박수경(1994)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
김효정(2004)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한국방송공사(1995)	생활필수시간(수면, 식사, 신변잡일), 노동시간(일, 학업, 가사), 이동시간, 여가시간(교제, 휴양, 레저활동,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시청)
통계청(2004)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출처: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42(2) p101. 재구성>

수도 있다. 따라서 구매활동에 한정된 소비활동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에 대한 확대된 개념 정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소비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하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3.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경험표집법)

1) ESM이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해 갖는 장점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일상활동에 가깝게 다가가서 이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Bronfenbrenner, 1979; Savin-Williams, 1987). 지금까지 일상생활 기록을 위해 사용되어온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집중 관찰법, 순간표집법, 생활일지법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각의 연구방법들은 신뢰할만한 포괄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경험표집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상생활연구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으로는 Barker와 Wright(1951)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집중 관찰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관찰자가 시계와 메모장을 지니고 연구대상 청소년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청소년이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집중 관찰법은 청소년의 하루 동안의 활동에 대해 정확한 기술을 제공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험적 내용들의 대부분을 언급할 만한 충분한 표본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순간표집법(spot sampling)으로서 인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접근법이다. 순간표집법에 의하면 관찰자들은 피관찰자의 일상생활에 대해 무선적으로 특정 순간을 선정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무작위적 관찰을 수백 번 되풀이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해당 문화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Munroe et al., 1983; Rogoff, 1978). 순간표집법은 피관찰자가 집밖에 있어 관찰 가능한 몇 개의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관찰자가 원하는 모든 시간에 그들이 가정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자료에 편향(bias)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세 번째 접근법은 시간일지(time diary)법이다. Carpenter 등의 연구(1989)에서는 일주일동안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조

를 받아) 매 15분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Timmer 등의(1985)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역시,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매분마다 24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재현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간일지 자료는 전적으로 회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편견이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의 경우 본인의 사적인 일은 일관적으로 적게 보고하고, 비계획적 시간에 일어나는 그 밖의 다른 짧은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적게 보고하는 문제점이 있다 (Csikszentmihalyi & Graef, 1980; Robinson, 1985). Medrich 등(1982)은 정확한 시간이나 사건을 회상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시간일지에서의 오류가 청소년들에게선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방법이 크게 혹은 작게나마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M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집중관찰법이나 순간표집법, 시간일지법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ESM은 호출기나 휴대폰을 휴대한 참여자들이 무작위적인 시간에 호출되었을 때 그들의 활동을 미리 준비된 기록지에 생생하게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순간표집법과 비슷하면서도 관찰자의 개입과 관련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일지법처럼 청소년들을 자료원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점은 참여자들이 각 시간 표본에 대해 부가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자료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이며 이들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ESM은 일상생활에 관하여 양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질적인 자료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2) ESM의 조사방법 및 절차

ESM을 이용한 조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1일에 8회, 1주일에 56회의 시그널을 특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험자에게 보내고, 피험자는 시그널이 울릴 때마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등 그 당시의 상황과 행복감, 즐거움, 활동 정도, 집중력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주머니 크기의 작은 질문지에 즉시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ESM을 이용하면 피험자의 행동 패턴이나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내적·외적경험을 1주일에 걸쳐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험표집은 피험자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장치로서 무선호출기나 알람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되는 손목시계는 특수제작된 것으로

서 피험자가 본래 착용하는 시계 이외에 또 하나의 시계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시계 제작을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미 급속하게 보급되어 가는 휴대전화를 시그널을 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설정된 타임스케줄에 따라 '질문지에 응답하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게 된다. 연구자는 예약기능을 이용해 미리 모든 피험자의 시그널 타임을 세팅하므로 송신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문자메시지가 누락되거나 예정된 시간 이외에 전송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SM에 의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조사기간 동안 무선적으로 울리는 휴대전화의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정하며, 실제 1회의 경험표집양식(ESF: Experiential Sampling Method)을 작성해 보도록 하고 경험표집양식에 수록된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경험표집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1회 이상 시범 조사를 실시해 본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조사대상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에 참여할 조사대상자가 확정되면 조사기간 동안 신호발송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를 예약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대상자는 휴대폰과 경험표집양식을 묶은 소책자를 조사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면서 신호가 울릴 때마다 정해진 양식의 경험표집양식에 순간적으로 응답하게 된다. 신호를 받은 지 15분 안에 경험표집양식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15분이 경과하면 경험표집양식을 작성하지 말고 빈 응답지로 남겨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 그 다음 경험표집양식에 같은 요령으로 15분 이내에 응답하도록 한다. 일주일간의 경험표집이 끝나고 경험표집양식을 수합하기 위한 자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 ESM의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후속설문지를 가지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종 자료의 수합이 모두 끝나면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불한다.

III.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주부의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경험은 어떠한가?

[1-1] 취업 주부의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경험은 어떠한가?

[1-2] 비취업 주부의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은 어떠한가?

[2-1] 취업 주부가 인지하는 동기(motivation), 정서(affect), 활동성(activation), 효율성(efficiency)은 어떠한가?

[2-2] 비취업 주부가 인지하는 동기(motivation), 정서(affect), 활동성(activation), 효율성(efficiency)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주부가 일상생활시 경험하는 플로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취업/비취업 주부의 소비생활경험 및 주관적 삶의 질을 ESM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SM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설문지가 사용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도 2가지 형태로 구축된다. 우선 소비생활의 단면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약 2~3시간 간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하게 하는 ESM 고유의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ESF(Experiential Sampling Form)라는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ESF는 하루 7회, 5일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1인당 35회의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이를 응답범주 데이터라 한다. 또 하나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1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

본 연구에서는 김기옥(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취업/비취업 주부의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을 ①가사활동, ②자녀관련활동, ③개인활동, ④생리활동, ⑤쇼핑활동, ⑥사회활동, ⑦업무활동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2)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선행연구(Csikszentmihalyi & Kubey, 1981; Csikszentmihalyi & Figurski, 1982)를 토대로 ①동기(motivation), ②정서(affect), ③활동성(activation), ④효율성

(efficiency)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소비생활경험

본 연구에서 소비생활경험은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 중 “쇼핑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4) 플로우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4-channel 방식에 따라 ① boredom, ② anxiety, ③ flow, ④ apathy의 최종 4가지 상태로 나뉘어진다. boredom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부과되는 일의 수준, 즉 도전이 높지 않을 경우 따분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anxiety는 boredom과 반대의 양상으로서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일이 부과될 때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 불안감 등을 의미한다. flow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부과되는 일이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충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apathy는 부과되는 일의 도전정도도 낮고, 일을 해낼 능력도 부족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전/능력의 비(ratio)에 의해 얻어진 flow의 값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능력과 도전의 정도가 유사한 flow상태에 근접한 상태라 해석할 수 있다.

2) 조사도구 및 방법

(1) ESF : 응답데이터(response level data) 수집용

ESF는 약 2~3시간 간격으로 무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취업/비취업 주부들이 신호가 울린 그 당시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관찰하도록 고안되었다. 조사대상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 하고 있던 활동이 무엇이었으며 그 순간 조사대상자가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만약에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질문함으로써 특정 행위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ESF에는 주된 활동 및 상황변수, 주관적 삶의 질 변수, 만족도변수, 플로우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주된 활동과 상황변수는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유목화작업을 거쳐 명명적으로 리코딩되었다. 주관적 삶의 질 변수는 동기(5), 정서(15), 활동성(3), 효율성(4)의 4가지 차원으로 측정되었다.

동기(motivation)는 특정 활동을 하게 된 원인 또는 이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습관, 의무, 불안, 중요, 재미의 5

가지 동기로 세분된다. 정서(affect)는 기쁨, 희망, 행복감 등의 긍정적 정서와 슬픔, 불안, 긴장 등의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항목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효율성(efficiency)은 상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중도, 집중용이성, 통제능력, 자발성의 4가지 항목의 7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활동성(activation)은 특정 활동을 할 때 개인이 인지하는 능동적 느낌과 생동감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활동인 경우 활동성은 높아지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임, 따분함, 힘없음의 3가지 항목의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만족도는 일 자체에 대한 만족과 특정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의 두가지 측면에서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플로우는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4-channel 방식에 따라 도전(challenge)과 능력(skill)의 수준을 묻는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2) 개인설문지: 개인데이터(personal level data) 수집용

개인설문지는 연령, 가정소득수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와 가치관, 쇼핑동기와 같은 고정적 변수를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취업/비취업 주부들의 일상생활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정적 변수에 대한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개인설문지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고정변수들로서 소득, 주관적 SES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데이터종류	측정도구	측정내용	초점
응답범주 데이터 (response level data)	ESF	취업/비취업 주부의 일상생활 경험 및 주관적 삶의 질 측정	순간순간 변화하는 일상의 다이나믹한 순간 포착
개인범주 데이터 (personal level data)	일반 설문지	일반적 특성,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고정적 변수(가치관, 소비태도, 쇼핑동기 등) 측정	응답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 또는 지속적인 성향 및 태도 파악

3) 조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경험표집과 설문조사의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먼저 ESM 자료수집에 사용되는 설문양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삶의 질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ESF를 토대로 주부에 맞게 수정, 예비조사를 통해 경험표집양식을 정교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비조사는 2006년 1월 4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1일 동안 경험표집양식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수와 조사기간만을 단축할 뿐 본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이해도 및 신호전달시스템을 점검하였다.

(2)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경험표집양식과 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비취업 주부의 소비생활경험과 주관적 삶의 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ESM이라는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흔히 행해왔던 최종 조사된 연구 결과를 전체 주부의 소비생활경험 및 주관적 삶의 질 수준으로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본 연구에서 의미를 상실한다. 따라서 다분히 사례 연구적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2006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를 각각 20명씩으로 해서 총 40명을 선정하였으나 중도에 조사를 포기한 대상자 1인을 제외하고 총 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비취업 주부의 쇼핑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쇼핑활동시 임의적으로 1회의 쇼핑용 ESF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response level data 1,350부의 response level data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취업주부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도록 표집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39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평균/빈도(S.D./%)
연령		32.36(9.29)세
취업여부	취업	19(48.7)명
	비취업	20(51.3)명
학력	중졸이하	2 (5.1)명
	고졸	18(46.2)명
	대졸	15(38.5)명
	대학원이상	4(10.3)명
월평균 총소득		322.30(170.56)만원
주관적 SES	상류층	0 (0.0)명
	중상층	18(46.2)명
	중류층	15(38.5)명
	하상층	4(10.3)명
	하류층	2 (5.1)명

IV. 연구결과

1. 주관적 삶의 질 구성차원

본 연구에서는 ESM을 이용해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했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취업/비취업 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을 동기(motivation), 정서(affect), 활동성(activation), 효율성(efficiency)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으며 이의 측정을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다. 동기는 ①습관, ②의무, ③불안, ④중요, ⑤재미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정서와 활동성, 효율성은 각각 7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에 명목척도로 측정된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이용해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요인을 유목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직교회전(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구성요인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활동성, 효율성의 총 4개의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각각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40.14%, 16.24%, 10.47%, 5.45%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4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72.30%를 설명하고 있다. 유형화된 요인들의 크론바하알파 계수는 긍정적 정서가 .95, 부정적 정서가 .87, 활동성이 .75, 효율성이 .77로서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만족할

<표 4> 주관적 삶의 질 구성요소

요인	주관적 삶의 질	요인 값	아이겐 값	분산변량	크론바하 α	평균값(표준편차) /빈도(%)	
동기 (motivation)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어서	N/A	N/A	N/A	N/A	283(21.1)	
	해야만 할 상황이어서	N/A				469(35.0)	
	안하면 불안하고 걱정되서	N/A				32 (2.4)	
	중요하고 가치있어서	N/A				211(15.7)	
	재미있고 즐거워서	N/A				249(18.6)	
정서 (affect)	긍정적 정서	신난다	.891	8.43	40.14	.95	4.04 (1.84)
		기쁘다	.885				
		유쾌하다	.880				
		힘이난다	.857				
		즐겁다	.849				
		행복하다	.834				
		자랑스럽다	.765				
	적극적이다	.715					
	부정적 정서	불안하다	.797	3.41	16.24	.87	1.69 (0.94)
		걱정이다	.770				
		슬프다	.713				
		우울하다	.709				
		화나다	.685				
		긴장되다	.578				
외롭다		.577					
활동성 (activation)	수동적이다	.739	1.19	10.47	.75	2.01 (1.23)	
	따분하다	.722					
	힘이없다	.644					
효율성 (efficiency)	그 일에 몰두해 있다	.872	1.01	5.45	.77	5.25 (1.23)	
	그 일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732					
	마음먹은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701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였다	.654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들의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경험

취업/비취업 주부들의 5일간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생리활동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사활동이 20.1%로 생리활동에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업무활동이었는데 이는 취업주부에만 한정되는 활동인 관계로 취업/비취업 주부를 모두 평균했을 때에는 생리활동, 가사활동 다음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생리활동보다도 많은 2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사회활동과 개인활동은 12.7%, 10.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소비생활경험의 주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쇼핑활동도 7.9%로 나타나 주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쇼핑활동은 적지 않은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일상생활의 주된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업무활동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가사활동을 살펴보면, 취업주부는 신호가 울렸을 때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빈도가 15.1%로 나타났으나 비취업주부는 34.8%로서 취업주부에 비해 2배 이상 가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련 활동의 경우에도 취업주부는 5.2%만이 해당되었으나 비취업주부는 13.3%로서 2.5배 이상 자녀관련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개인활동과 생리시간, 쇼핑활동, 사회활동 등 모든 활동영역에서 비취업주부의 활동 빈도가 취업주부보다 높

<표 5> 취업/비취업 주부의 일상생활 속의 주된 활동

단위 : 빈도(%)

구분	전체	취업 주부	비취업 주부	χ^2
가사활동	271(20.1)	99(15.1)	172(34.8)	251.34***
자녀관련활동	128 (9.5)	34 (5.2)	94(13.3)	
개인활동	136(10.1)	48 (7.3)	88(12.7)	
생리활동	309(22.9)	143(21.9)	166(23.9)	
쇼핑활동	107 (7.9)	46 (7.0)	61 (8.8)	
사회활동	171(12.7)	74(11.3)	97(14.0)	
업무활동	193(14.3)	191(29.2)	2 (0.3)	
기타	33 (2.4)	19 (2.9)	14 (2.0)	

았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업무활동이 하루 생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나머지 영역의 활동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비취업 주부의 소비생활경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쇼핑활동의 목적 및 동기, 장소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쇼핑활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에 따라 쇼핑활동을 구분해 보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일상적(usual)으로 이루어지는 활동(①생활용품구입, ②자녀양육관련), 특별히 관례적(ritual)으로 이루어지는 활동(③선물, ④제사준비), 개인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⑤여가, ⑥정보탐색), 시장상황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

어지는 활동(⑦할인행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설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명절 준비를 위한 관례적 활동, 즉 선물구입이나 제사준비 등의 응답이 다소 많이 나타났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주부들의 쇼핑상황은 생활용품 구입이라는 쇼핑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핑활동이 단순한 가사활동의 일환은 아니라는 점이다. 할인행사와 같이 특별히 구매를 목적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3.4%나 되었고, 쇼핑 자체를 여가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현상(4.3%)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들의 쇼핑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표 6> 취업/비취업 주부의 쇼핑동기

단위 : 빈도(%)

구분	구분	전체	취업 주부	비취업 주부	χ^2
일상적 (usual)	생활용품구입	63(53.8)	26(55.3)	36(52.2)	5.99
	자녀양육 관련	14(12.0)	5(10.6)	9(13.0)	
관례적 (ritual)	선물	13(11.1)	4 (8.5)	9(13.0)	
	제사준비	2 (1.7)	1 (2.1)	1 (1.4)	
개인적 (individual)	여가	5 (4.3)	1 (2.1)	4 (5.8)	
	정보탐색	5 (4.3)	2 (4.3)	3 (4.3)	
시장상황적 (market driven)	할인행사	4 (3.4)	1 (2.1)	3 (4.3)	
	기타	10 (8.5)	6(12.8)	4 (5.8)	

<표 7> 구매를 원하면서도 구매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빈도(%)

구분	구분	전체	취업 주부	비취업 주부	χ^2
가사활동 때문에 쇼핑을 할 수 없어서		41(37.6)	14(33.3)	26(39.4)	3.95
실용성이 결여되는 물건이므로		7 (6.4)	3 (7.1)	4 (6.1)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므로		28(25.7)	12(28.6)	16(24.2)	
쇼핑하기 부적절한 상황이어서		12(11.0)	4 (9.5)	8(12.1)	
사려는 상품이 없어서		7 (6.4)	4 (9.5)	3 (4.5)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1 (0.9)	0 (0.0)	1 (1.5)	
기타		13(11.9)	5(11.9)	8(12.1)	

발견되지 않았다.

쇼핑을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경우라 해도 모두 구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주부들이 구매를 원하면서도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①가사활동 때문에 쇼핑을 할 수 없거나(37.6%), ③크게 필요하지 않아서(25.7%), ④쇼핑하기 부적절한 상황이어서(11.0%), ③실용성이 결여되어서(6.4%), ⑤사려는 상품이 없어서(6.4%), ⑤심리적 불안감 때문에(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은 꼭 마음에서 사고자 하는 제품과 원하는 가격 등이 구매시점에 매치되지 않는다면, 조금 있으면 세일을 할지도 모르니 그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등의 시장의 상황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즉 주부들은 쇼핑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합리적 쇼핑상황에 대한 스코프(scope)을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매를 원하면서도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요 쇼핑 장소는 대형할인점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상품시장(21.1%), 슈퍼마켓(14.6%), 백화점(11.4%), 인터넷쇼핑몰(10.6%), 기타(6.5%), 재래시장(5.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장소 역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주부가 일상생활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

일상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이 하고 있는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표 9> 참조). 일상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행하는 주된 활동의 동기는 의무감과 습관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일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거나 재미있어서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부들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주된 활동의 동기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습관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주부는 의무감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많았다. 정서의 측면에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긍정적 정서에 높은 응답을 보임으로써 주부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은

<표 8> 취업/비취업 주부의 주요 쇼핑 장소

단위 : 빈도(%)

구분	전체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χ^2
대형할인점	37(30.1)	17(34.7)	20(27.4)	12.11
백화점	14(11.4)	7(14.3)	7 (9.6)	
슈퍼마켓	18(14.6)	6(12.2)	11(15.1)	
인터넷쇼핑몰	13(10.6)	6(12.2)	7 (9.6)	
일반상품시장	26(21.1)	10(20.4)	16(21.9)	
재래시장	7 (5.7)	0 (0.0)	7 (9.6)	
기타	8 (6.5)	3 (6.1)	5 (6.8)	

<표 9>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t값	
동기	습관	.20 (.40)	.17 (.37)	.24 (.43)	-3.44***
	의무	.34 (.47)	.38 (.48)	.31 (.46)	2.76**
	안하면 불안해서	.02 (.15)	.03 (.16)	.02 (.15)	.52
	가치있는 일이므로	.15 (.36)	.14 (.35)	.16 (.37)	-1.28
	재미있어서	.18 (.38)	.18 (.39)	.18 (.39)	-.14
정서	긍정적 정서	4.03(1.57)	4.03(1.62)	4.03(1.52)	-.06
	부정적 정서	1.70 (.98)	1.84(1.10)	1.56(0.82)	5.37***
활동성	2.02(1.24)	2.07(1.33)	1.96(1.16)	1.56	
효율성	5.25(1.23)	5.19(1.28)	5.31(1.18)	-1.78	

주) 동기의 하위영역은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됨.

상당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 모두가 같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취업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부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주부가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은 비취업주부가 좀 더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활동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이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사활동, 자녀관련 활동, 개인활동, 생리활동, 쇼핑활동, 사회활동, 업무활동의 총 7가지 주된 활동별로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검증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활동별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scheffee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사활동은 생리적 활동 다음으로 습관적(m=0.33)으로 행하는 활동이면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m=0.48)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자녀관련 활동은 의무가 가장 강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응답(m=0.22)과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m=0.23)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개인활동은 재미있어서 하게 된다는 응답(m=0.42)이 가장 많았고, 쇼핑활동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m=0.35)이라는 응답과 재미있어서(m=0.33) 한다는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 2 순위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교적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동기 또한 매우 자유로울 것이라 예상했던 사회활동의 경우 의무감에 의한 경우가 40%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동기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인 점이 흥미롭다.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서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가장 높은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인 활동은 쇼핑활동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개인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 정서가 낮은 활동은 업무활동이었으며, 가사활동도 긍정적 정서반응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쇼핑활동이 가장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녀관련 활동, 개인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의 측면에서는 쇼핑활동, 자녀관련 활동, 개인활동, 생리활동은 7점 만점에 3점을 넘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사회활동, 업무활동, 가사활동은 2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값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비취업 주부들이 쇼핑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해야만 하는 상황, 즉 의무에 의한 일(work)의 성격이 가장 크지만, 다른 어떤 활동보다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는 낮으며, 효율성과 활동성이 뛰어나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일(work)의 성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부들이 쇼핑활동을 하는 이유는 의무적 측면이 강하지만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여타의 다른 활동에 비해 자율적으로 생동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또 일에 대한 친숙도와 능률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쇼핑이라는 일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로 나누어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우선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동기의 5가지 차원과 정서 2가지 차원, 활동성, 효율성의 모든 주관적 삶의 질 차원이 주된 활동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주부에게 있어 가사활동과 자녀관련 활동, 업무활동은 의무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특히 가사활동(m=0.58)은 업무활동(m=0.51)보다도 의무감에 의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가 가사활

<표 10> 주된활동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차이

구분	동기					정서		활동성	효율성
	습관	의무	안하면 불안	가치	재미	긍정적	부정적		
가사활동	0.33 ^a	0.48 ^a	0.03	0.11 ^c	0.03 ^d	3.80 ^c	1.77	1.25 ^c	4.79 ^b
자녀관련	0.22 ^b	0.38 ^b	0.04	0.23 ^a	0.09 ^d	4.15 ^{bc}	1.51	3.67 ^a	5.50 ^a
개인활동	0.16 ^{bc}	0.12 ^c	0.05	0.18 ^b	0.42 ^a	5.05 ^a	1.74	3.51 ^a	5.43 ^a
생리활동	0.37 ^a	0.17 ^c	0.01	0.08 ^d	0.25 ^c	4.49 ^b	1.69	3.12 ^b	5.07 ^b
쇼핑활동	0.04 ^d	0.35 ^{bc}	0.00	0.17 ^b	0.33 ^b	5.15 ^a	1.30	3.83 ^a	5.52 ^a
사회활동	0.03 ^d	0.40 ^b	0.02	0.16 ^b	0.32 ^b	4.27 ^b	1.70	1.44 ^c	5.38 ^a
업무활동	0.11 ^c	0.52 ^a	0.02	0.27 ^a	0.03 ^d	3.21 ^d	1.95	1.33 ^c	5.31 ^a
F값	1.103 ^{**}	1.080 ^{**}	0.382	0.892 ^{***}	1.021 [*]	17.016 [*]	15.883	12.647 [*]	16.820 [*]

주) 동기의 하위영역은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됨.

<표 11> 주된 활동에 따라 취업/비취업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차이

구분	동기					정서		활동성	효율성	
	습관	의무	안하면 불안	가치	재미	긍정적	부정적			
취업주부	가사활동	0.22 ^b	0.58 ^a	0.03 ^b	0.08 ^c	0.03 ^c	3.60 ^d	1.78 ^b	2.19 ^a	4.88 ^d
	자녀관련	0.20 ^b	0.50 ^a	0.08 ^a	0.11 ^b	0.05 ^c	3.48 ^d	2.07 ^a	2.20 ^a	5.33 ^b
	개인활동	0.08 ^c	0.08 ^c	0.08 ^a	0.14 ^b	0.47 ^a	4.57 ^b	1.90 ^a	1.95 ^b	5.50 ^a
	생리활동	0.34 ^a	0.13 ^c	0.00	0.03 ^d	0.31 ^b	4.01 ^c	1.64 ^b	2.05 ^b	5.39 ^b
	쇼핑활동	0.06 ^c	0.32 ^b	0.00	0.08 ^c	0.34 ^b	4.91 ^a	1.65 ^b	1.90 ^b	5.49 ^a
	사회활동	0.02 ^d	0.37 ^b	0.02 ^b	0.12 ^b	0.33 ^b	4.50 ^b	1.71 ^b	1.59 ^c	5.31 ^b
	업무활동	0.10 ^c	0.51 ^a	0.02 ^b	0.27 ^a	0.02 ^c	3.98 ^c	1.98 ^a	2.19 ^a	5.10 ^c
	F값	8.35 ^{***}	14.83 ^{***}	2.23 [*]	7.15 ^{***}	20.16 ^{***}	7.64 ^{***}	2.47 [*]	2.70 [*]	3.86 ^{***}
비취업주부	가사활동	.38 ^a	.41 ^a	.02	.12 ^c	.03 ^c	3.47 ^d	1.62 ^a	2.20 ^a	5.15 ^c
	자녀관련	.22 ^b	.32 ^b	.02	.27 ^a	.09 ^c	4.18 ^b	1.47 ^b	1.91 ^b	5.47 ^b
	개인활동	.19 ^b	.13 ^c	.03	.19 ^b	.38 ^a	4.64 ^a	1.39 ^c	1.65 ^c	5.68 ^a
	생리활동	.37 ^a	.18 ^c	.01	.10 ^c	.18 ^c	3.81 ^c	1.66 ^a	2.21 ^a	5.17 ^c
	쇼핑활동	.01 ^c	.36 ^b	.00	.22 ^b	.31 ^b	4.33 ^b	1.32 ^c	1.60 ^c	5.41 ^b
	사회활동	.03 ^c	.41 ^a	.02	.18 ^b	.30 ^b	4.65 ^a	1.52 ^b	1.56 ^c	5.40 ^b
	F값	13.11 ^{***}	7.76 ^{***}	1.80	2.43 [*]	11.71 ^{***}	10.09 ^{***}	4.30 ^{***}	7.01 ^{***}	3.06 ^{**}

주) 동기의 하위영역은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됨. 비취업주부의 경우 업무활동은 해당이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동 동기 중 의무감에 의한 동기가 평균 0.41인 것과 비교할 때 취업주부에게 있어 가사활동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관련 활동 역시 취업주부에게는 심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취업주부는 자녀관련 활동을 절반이나 의무감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m=0.50$), 비취업주부는 취업주부보다 훨씬 낮은 0.32의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자녀관련 활동에 대한 취업/비취업주부의 인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게 되는 활동이 비취업주부는 특별히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관련 활동과 개인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 또한 의무감에 의한 동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주부들은 취업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관련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취업주부들은 자녀관련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취업주부들은 업무활동보다 중요도 및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칫 취업활동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취업활동이 주는 경제적 효용의 가치보다 기회비용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취업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서의 측면에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주된 활동에 따라 느끼는 정서에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주부가 가장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활동은 쇼핑활동이었던 반면, 비취업주부는 사회활동과 개인활동을 할 때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가사활동을 할 때에는 긍정적 정서감을 가장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활동이 주부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관련 활동을 할 때 있어 비취업주부는 쇼핑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가사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동기의 차원에서 분석되었듯이 취업주부들이 자녀관련 활동을 안하면 안되는 의무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실제 자녀관련 활동을 할 때 정서상태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활동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관련활동과 가사활동, 업무활동에 대한 활동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고, 사회활동의 활동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으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개인활동과 쇼핑활동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활동은 가사활동이었으며, 업무활동의 효율성도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에서와 직장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서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비취업주부가 가장 활동성을 높게 인지하는 활동은 생리활동과 가사활동이었으며 개인활동과 쇼핑활동의 활동성을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 역시 가사활동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었고, 취업주부에 비해 쇼핑활동에 대한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부가 일상생활시 경험하는 플로우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경험하는 플로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4-channel 방식에 따라 도전(challenge)과 능력(skill)의 수준을 묻는 2문항의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4-channel은 도전과 기술의 비율에 따라 ① boredom, ② anxiety, ③ flow, ④ apathy의 최종 4가지 상태로 나뉘어진다.

boredom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부과되는 일의 수준, 즉 도전이 높지 않을 경우 따분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anxiety는 boredom과 반대의 양상으로서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일이 부과될 때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 불안감 등을 의미한다. flow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부과되는 일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충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apathy는 부과되는 일의 도전정도도 낮고, 일을 해낼 능력도 부족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전/능력의 비(ratio)에 의해 얻어진 flow의 값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능력과 도전의 정

도가 유사한 flow상태에 근접한 상태라 해석할 수 있다.

플로우 분석 결과 가장 도전을 많이 받는 활동은 개인활동과 자녀관련 활동이었고, 가사활동은 가장 난이도가 낮아 도전을 받지 않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취업 주부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개인활동, 자녀관련활동, 업무활동, 가사활동의 순이었으며 쇼핑활동은 가장 낮은 응답값을 보였다. 도전과 능력에 대한 점수의 비를 구해 플로우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높은 플로우 상태를 보인 것은 쇼핑활동($m=0.94$)이었고, 다음으로 자녀관련 활동, 개인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취업/비취업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능력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활동들이어서 따분함(boredom)을 느끼거나 무관심(apathy) 속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쇼핑활동에 대한 능력이 가장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쇼핑활동시 flow값이 가장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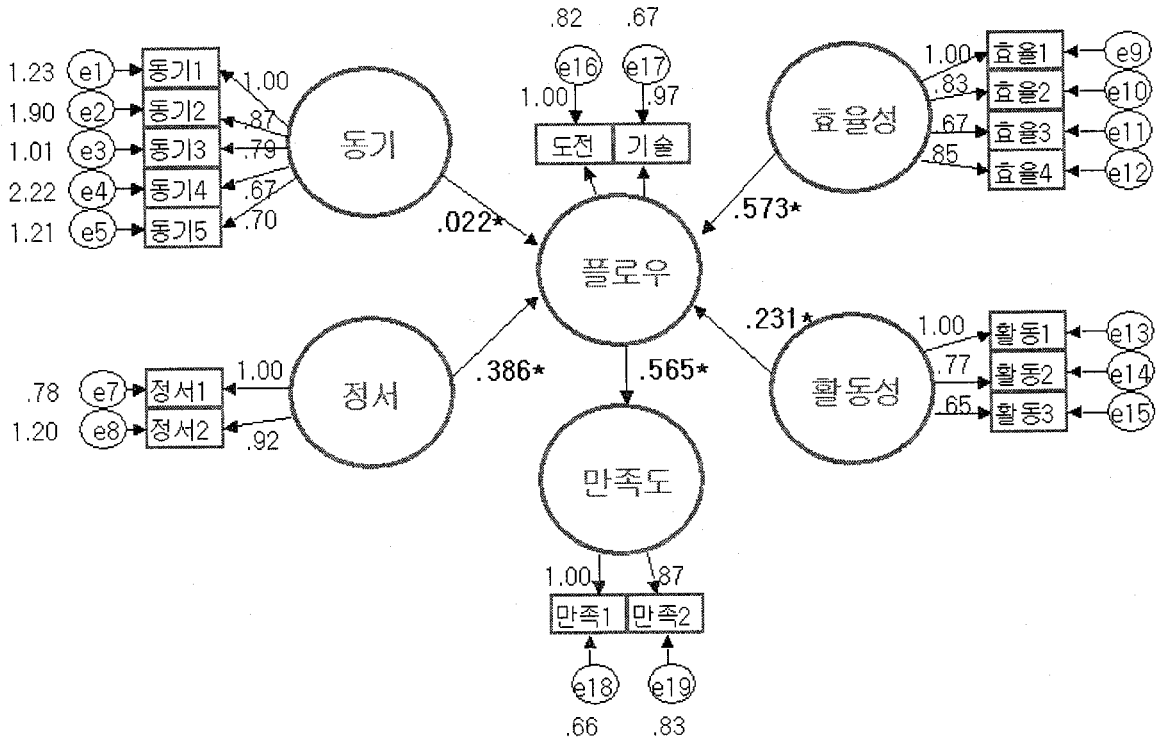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취업/비취업 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 형성과정과 함께 이것이 플로우 및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동기의 5차원이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되어 측정변수로 투입되었으며, 효율성 4항목, 활동성 3항목이 각각 측정변수로 투입되었다.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어 측정변수로 투입되었다. 플로우는 도전과 기술이 각각 측정변수로 투입되었고, 만족도는 일 자체에 대한 만족과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의 2항목이 측정변수로 투입되었다. 공분산 구조분석은 AMOS 6.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제안된 모델의 전반적 부합도를 살펴보면, χ^2 ($df=158$)값이 24542.7($p=.00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모델이든간에 그 값의 유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함이 있으므로(Bentler & Bonett, 1980) 또 다른 부합도 지수인 기초부합치(GFI : goodness of fit index)와 조정부합치(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원소간 평균차이(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 비표준부합치(NNFI : non-normed fit index)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초부합치(GFI)는 0.92, 조정부합치(AGFI)는 0.84, 원소간 평균차이(RMR)는 0.006로서 모델의 부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주부가 인지하는 주된 활동별 플로우

구분	도전 (challenge)	능력 (skill)	flow (도전/능력)
가사활동	3.87 ^c	5.55 ^a	.74 ^c
자녀관련	4.83 ^a	5.58 ^a	.93 ^a
개인활동	4.85 ^a	5.61 ^a	.90 ^b
생리활동	4.08 ^c	5.40 ^b	.79 ^c
쇼핑활동	4.77 ^a	5.36 ^b	.94 ^a
사회활동	4.56 ^b	5.40 ^b	.87 ^b
업무활동	4.62 ^b	5.57 ^a	.87 ^b
F값	8.734 ^{***}	5.102 ^{***}	5.726 ^{***}



	X ²	df	GFI	AGFI	RMR	NNFI
모형부합지수	24542.732	158	.92	.84	.006	.64

[그림 3]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이론모델에서 설정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동기, 정서, 효율성, 활동성의 4가지 주관적 삶의 질 변수는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변수들중에서 효율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수에 대한 각 측정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동기에서는 습관과 의무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기에 비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에서는 긍정적 정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몰두하였는가의 몰입정도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지 않을 수록 높은 플로우를 경험하며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절대적인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에 있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비생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순간순간의 상황과 맥락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취업/비취업 주부의 소비생활경험과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sikszentmihalyi(1984)의 경험표집법(ES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취업 주부의 주관적 삶의 질은 동기, 정서, 효율성, 활동성의 4차원으로 구성된다. 동기는 다시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주부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은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로우 분석의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전이 낮고 그에 비해 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들은 다소 따분한 느낌을 주는 활동들로 채워질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가지로 구분된 활동들 중에서 쇼핑활동은 효율성 및 활동성이 가장 우수하고 플로우 역시 가장 높은 활동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생활에 긴장감과 도전감을 높

여출 수 있는 활력소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인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활동에 대한 동기인식이 의무감에 의한 것으로 안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긍정적 정서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며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취업을 선택함에 따르는 가장 큰 기회비용이 자녀양육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자녀관련 활동에 대해 주관적 삶의 질 인식이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취업 주부 개인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비롯한 모든 가족원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취업주부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부 스스로가 자녀관련 활동을 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의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간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쇼핑활동이 여타의 활동들에 비해 높은 플로우와 주관적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취업 주부에게 있어 쇼핑활동은 다른 활동 또는 비취업주부의 쇼핑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게 하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쇼핑활동은 일상생활 중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며 그 만큼 주부들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쇼핑활동의 동기가 오락적 측면보다는 일(work)의 측면이 강하지만 일반적인 업무활동과는 달리 쇼핑활동은 주부들에게 높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쇼핑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에서의 편견과 해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망된다. 쇼핑활동이 갖는 이와 같은 다면적인 특성은 쇼핑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맥락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쇼핑 특성을 보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함으로써 쇼핑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업/비취업 주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동기, 정서, 효율성, 활동성의 4가지 주관적 삶의 질 변수와 플로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우는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SM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을 통해 소비활동의 추적이 되고 있는 주부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 쇼핑활동을 고

정된 시간과 인식의 틀에서 측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순간순간의 상황적 요소를 가급적 파악할 수 있었으며 소비생활경험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취업/비취업으로 구분되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을 미처 실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다 세분된 구조분석을 통해 소비생활경험이 주부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이는 다시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주부 및 비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 지지체계(support system)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험표집법, 소비생활, 주관적 삶의 질, 주부

참 고 문 헌

- 고정자 · 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1.
- 김기욱(2006). 도시주부의 소비생활세계: 일상 소비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7(3), 21-41.
- 김기욱 · 김순옥 · 황선진 · 이수진 · 현은자 · 최인수 · 유현정(2005). ESM을 통해 본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정서, 인지적 효율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대한가정학회지*, 43(2), 203-229.
- 김기욱 · 현은자 · 최인수 · 유현정(2004). 학교와 학원의 비교를 통해 본 청소년의 플로우 및 내적경험. *대한가정학회지*, 42(43), 127-142.
-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 박명숙 · 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89.
- 변순희 · 계선자(2004).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친화적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111-134.
- 이정우 · 정진희(2002).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09-120.
- 이현승(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1집(여름호), 269-301.
-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정순희(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의 소비지출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18.
- 조금숙 · 조중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9(3), 27-41.
- 조은경(1995). 정서적 균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주제: 삶의 질의 심리학.
- Babad, E. Y. & Wallbott, H. G.(1986), The effects of social factors on emotional actions. In K.R. Scherer, H.G.Wallbott & A.B.Summerfield(Eds.), *Experiencing emotion: A cross-cultural stud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ef, A.P., Butcher, A.H., George, J.M. & Link, K.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F. B. & Verl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3(3), 653-673.
- Csikszentmihalyi, M. & Graef, R. (1980). The experience of freedom in everyday lif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401-414.
- Csikszentmihalyi, M. & Kubey, R. (1981). Television and the rest of life: A systematic comparison of subjective experi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5, 317-328.
- Csikszentmihalyi, M. & T. R. Figurski (1982). Self-awareness and aversiv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50(1), 15-2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542-575.
- Lecci, L., Okun, M.A., & Karoly, P.(1994), Life regrets and current goal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731-741.
- Munroe, R.H., Munroe, R.L., Michelson, C., Koel, A., Bolton, R., & Bolton, C. (1983). Time allocation in four societies. *Ethnology*, 22, 355-370.
- Robinson, J.P. (1985).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iaries versus alternative time use measures. In Juster, F.T. & Stafford, F.P. (Eds.), *Time, Goods, and Well-Being*,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Ross, C. E., Mirowsky, J. & Gold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2, 1059-1078.

(2006. 12. 04 접수; 2007. 03. 31 채택)